



● **양방향 통합 셋톱박스 개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일렉트로닉스(대표 김충훈 <http://www.dwe.co.kr>)는 디지털 방송의 5가지 주요기능을 통합한 양방향 통합 셋톱박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능에 디지털영상저장(PVR)기능, 인터넷 서비스, 양방향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기능 등 5가지 기능을 통합한 제품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3년간 5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양방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는 방송국으로부터 기존 방송 이외에 부가적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받는 서비스로 시청자는 드라마 시청 도중 해당 드라마의 줄거리 및 주연배우의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출연배우가 착용한 액세서리를 셋톱박스를 통해 즉시 구매하는 등 인터랙티브를 강조한 방송 서비스다. 또 시청자 취향에 따라 원하는 프로그램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영상사업부부장 장규환 전무는 “양방향TV 서비스는 현재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힘을 쏟고 있는 차세대 기술 방식으로 이번에 개발된 양방향 통합 단말기가 가정내 디지털 정보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양방향 및 맞춤형 방송서비스는 KBS 및 국내 가진 3사가 참여한 가운데 국책 과제로 개발중이며 2005년경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 1999년 독자기술로 셋톱박스 개발에 성공한 이후 유럽과 남미

를 중심으로 수출을 해왔으며, 올 하반기 중에 우선 PVR 기능이 내장된 복합 셋톱박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학원인 중앙정보처리학원(대표 정상은)과 ‘IBM z시리즈 전문 교육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z시리즈 서버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다.

이번 센터는 메인프레임 기반 시스템 프로그래머 교육 활성화 및 병렬 시스플렉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IBM은 중앙정보처리학원내에 IBM S/390 G6 및 주변기기, 운용체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교육실습을 지원한다. 한국IBM은 이 교육센터를 활용해 메인프레임 사용자의 저변 확대 및 IBM z시리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뇌파 이용 디지털학습능력진단도구 출시**

락싸

생체신호 계측장비 전문 개발업체인 락싸(대표 배병훈 <http://www.laxtha.com>)는 뇌파를 이용해 학습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진단도구를 개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디지털 학습능력 진단도구는 기존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문제지를 풀어 점수를 산정하는 결과론적인 평가방식과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파형을 실시간으로 분석, 개인별 학습능력을 평가하도록 설



계돼 있다.

사용자의 머리에 뇌파 전극을 부착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되는 문제를 키보드로 풀기만 하면 실시간 뇌파분석과 함께 인지강도, 인지속도, 집중도, 뇌 부하도, 정답률과 오답률 등 평가결과가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된다.

이외에 락싸는 뇌파를 이용한 두뇌개발 바이오피드백 도구도 내놓았다. 이 도구는 사용자의 집중력 훈련이나 우뇌개발 등 부족한 점을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배병훈 사장은 “약 10%에 달하는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후 학습능력 뇌파의 DB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인에 맞는 디지털 IQ 측정 검사장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54Mbps 트리플모드 무선랜 형식승인 획득**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강호문 <http://www.sem.samsung.co.kr>)는 802.11a·b·g 등 세 가지 무선랜 통신규격을 모두 지원하는 노트북용 미니PCI(모델명 SWL-5200M)와 PC카드(모델명 SWL-5200N) 등 두 가지 제품의 형식승인을 획득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이 제품 하나로 ‘핫스팟’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802.11a나 b·g 중 하나를 선택, 접속할 수 있는 트리플 모드 형태가 된다. 특히 802.11b

로 구축된 기존 핫스팟에서는 802.11b로, 802.11a 지역에서는 802.11a 방식으로 접속해 최대 54Mbps의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 2.4GHz 대역(802.11b)과 5GHz 주파수 대역(802.11a·g) 중 한 주파수 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망 구성이 용이하다.

즉 802.11b로 무선랜에 접속하는 도중 2.4GHz 대역인 전자레인지 작동하면 주파수 간섭으로 전송속도가 떨어지거나 접속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 제품은 트리플 모드여서 이 같은 단점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연구그룹 황언 수석연구원은 “무선랜카드의 핵심부품인 RF부품 모듈을 자체 설계·제작했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이 좋고 원가경쟁력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다음달 802.11a·b·g 방식을 지원하는 액세스포인트(AP)까지 개발완료한 후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이번 무선랜 트리플 모드 제품군에서 올해 100억원, 내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 무선 TV처럼 무선랜을 AV에 적용하는 무선AV 분야와 스마트디스플레이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3세대 휴대폰용 메모리칩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윤종용)가 고화질의 동영상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3세대 휴대폰용 메모리칩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256메가비트(Mb) 모바일 더블데이터레이트(DDR) SD램과 512Mb 낸드(NAND)형 플래시메모리를 조합해 하나의 칩으로 만든 다중칩(MCP:Multi Chip Package)이다.

중전 캠코더폰이나 TV폰의 동영상 저장능력이 30분 수준인 데 반해 이 제품은 1시간 분량의 VGA급(30만화소) 동영상 저장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시장전망이 밝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모바일 DDR와 낸드형 플래시메모리를 1.8V의 낮은 전압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했으며 휴대폰의 경박 단소화 추세에 맞춰 MPC 크기를 가로 10.5mm, 세로 13.0mm, 두께 1.4mm로 제작했다.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휴대폰 범용 메모리로 사용되던 S램을 속도가 빠르고 저장 버퍼(buffer)가 대폭 늘어난 모바일용 DDR SD램으로 대체했으며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메모리를 결합해 휴대폰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측은 고속·대용량 휴대폰용 메모리 개발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TV나 영화를 즐길 수 있고 영상통화까지 일상화되는 이른바 3세대 휴대폰의 대중화 시기가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초 주요 휴대폰 및 칩세트 업체들로부터 모바일 DDR 제품에 대한 성능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5월에는 MCP의 성능 검증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며 오는 10월부터 MPC 양산에 들어가는 한편 연말에는 512Mb 모바일 DDR와 1Gb 낸드형 플래시메모리를 결합한 MCP 차기 모델의 개발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 가스엔진 시스템에어컨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가스엔진 구동식(GHP:Gas engine driven Heat Pump) 시스템 멀티 에어컨 실내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대표적인 GHP 제조업체인 아이신(AISIN)사와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의 독자기술인 DVM(Digital Variable Multi)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에 도요타 엔진을 장착한 아이신사의 실외기를 조합, GHP 실내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가스엔진식 냉난방기인 GHP는 도시가스(LNG)를 사용, 기존의 전기식(EHP:Electric Heat Pump) 시스템 에어컨에 비해 40% 이상의 전력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빌딩용 시스템 멀티 에어컨인 DVM과 DVM플러스 제품을 보유한 데 이어 GHP를 개발완료해 빌딩공조에 있어서 플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시스템가전사업부 이문용 부사장은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GHP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전기식(EHP), 가스식(GHP)을 망라한 ‘토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마케팅과 전문서비스망을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GHP 시장을 선도하며 해외시장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



했다.

GHP방식 냉난방기는 지난해 약 1500대가 국내에 설치됐으며 올해는 4000여대가 공급돼 3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중국시장 최고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공략**

**삼성SDS**

시스템통합(SI) 업계 선두주자인 삼성 SDS(대표 김인 <http://www.sds.samsung.co.kr>)가 최대 전략적 거점으로 정한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카드를 뽑아들었다.

중국사업 확대를 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삼고 기존 해외사업 관리·지원조직과 별도로 중국시장 관련 조직을 따로 떼내어 이달 초 '중국 태스크포스(TF)'를 전격 출범시켰다.

'중국TF'는 중국인인 하오 인 팀장을 비롯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중국 관련 전문인력 5명(중국인 3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하오 인 팀장은 중국 칭화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MBA를 거쳐 지난해 초 삼성 미래전략그룹으로 입사, 중국 전략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한 재원이다.

중국 TF는 특히 중국 사업전략 수립을 비롯해 현지 시장조사, 신규사업 기회 발굴, 마케팅 활동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짜는 셈이다.

김인 사장은 각 본부나 사업부(unit)가 중국 법인이나 현지 거래선과 직접 접촉을 할 경우 중국TF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TF에 전폭적으

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SDS는 이를 계기로 약 60명 규모의 중국법인(법인장 배홍규)과 중국TF를 '쌍두마차' 삼아 올 하반기부터 중국사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삼성SDS는 당초 지난 5월 계획했으나 사스 등의 이유로 미뤄 왔던 중국지역 전략회의를 다음달 하순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지역전략회의에서는 중국 현지 법인과 중국TF가 공동으로 현지 사업확대 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는 중국 광저우시의 지하철 1, 2호선 지하철요금징수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데 이어 현재 3호선에 대한 사전 영업을 추진 중이다.

또 'uniERP(모델명 비젠트로)' '이지베이스(모델명 리큐브·리포팅 솔루션)' 등 자체 개발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중국버전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중국 베이징·광저우·상하이 등 3개 지역에 법인과 사무소를 운영 중인 삼성SDS는 중국시장에서 지난해 1000만달러의 매출을 거둔 데 이어 올해는 2400만달러의 매출 목표를 잡고 있다.

**모바일 영상감시 프로그램 출시**

**성진씨앤씨**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 <http://www.sjcnc.com>)는 자사가 개발한 디지털영상감시장



치(DVR)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연동, 무선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DiSS MobileAgent'를 출시했다.

무선 랜이 내장된 PDA에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녹화된 영상의 재생은 물론 카메라 감시방향도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회사측은 'PC나 모니터 없이도 수십개의 카메라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중인 아파트 경비원이나 각종 매장을 원거리에서 관리하는 매장주인 등에게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우선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 제품을 자사 DVR 구매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독립된 패키지 상품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에서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임병진 사장은 "모바일 감시 기능이야말로 기존 아날로그 CCTV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진전된 기술"이라며 "최근 주차장 납치사건 및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모바일 감시시스템이 출시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범지역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 미국에 지사 설립키로

#### ———— 세라텍 ————

세라텍(대표 안병준 <http://www.ceratech.co.kr>)은 향후 6개월내에 미국 현지 마케팅 담

당법인인 세라텍USA를 청산하고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사를 설립할 경우 현지법인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역할은 기존과 현지법인을 대체할 수 있어 이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11월 설립된 세라텍USA는 미주 지역의 마케팅 활동을 담당해 왔으며 새로 설립되는 지사는 이를 대신해 고객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신규업체 개발 및 통제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세라텍은 미국 현지법인의 유가증권 감액손실(6억5000만원)을 이미 지난해 회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청산이 올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 ● 5.1채널 음향무선 전송 실현

#### ———— 아이큐브 ————

PC에서 TV, 오디오 등의 가전제품으로 5.1채널 음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아이큐브(대표 강성재 <http://www.icube.co.kr>)의 김용호 이사는 "모든 포맷의 5.1채널 음향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늦어도 오는 8월 쯤에는 이를 상용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PC의 영상 및 음향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해 가전제품에서 재생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적이 있지만 5.1채널 음향까지 지원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호 이사는 "PC는 각종 콘텐츠를 쉽게 구하는 장점이 있지만 모니터의 한계, 설치 장소의 문제 등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감상하기에는 가전제품보다 단점이 많았다"며 "PC와 가전기기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한편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PC와 AV기기를 연동시키는 제품을 개발했으며 또 스테레오만 지원하던 음향부분도 5.1채널까지 지원토록 개선해 PC가 멀티미디어 환경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부분의 가정마다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 PC와 인터넷을 이용하면 추가 부담없이 영화, 음악, 사진 등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가전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점에서 아이큐브의 기술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큐브는 PC의 영상 및 음성신호를 TV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플레이@TV를 출시한 바 있다.

IOT 테스트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휴대폰과 이동통신 시스템간 네트워크 호환성 테스트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사업자의 승인을 얻어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텔슨전자는 국내시장에 'Speed 011'이란 마크를 달고 자사의 와치폰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텔슨전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중국의 중국전자(CEC)와 와치폰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1차로 3만600대의 수출계약을 체결, 다음달 공급기로 한 바 있다.

텔슨전자 김동연 부회장은 "현재 와치폰 후속모델을 개발중이며, 이를 통해 와치폰 메이커로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텔슨전자는 일반폰은 물론 와치폰 스마트폰·멀티미디어폰 등 고부가 프리미엄폰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SK텔레콤 IOT 통과...국내 와치폰 공급 확정

### 텔슨전자

텔슨전자(대표 김동연 <http://www.telson.co.kr>)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IOT(Interoperability) 테스트를 통과해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와치폰 공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스마트카드칩사업 본격화

### 하이닉스반도체

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가 세계적인 임베디드 프로세서업체 ARM으로부터 보안용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코어 'SC100'을 라이선스해 스마트카드칩 사업을 본격 강화한다.

ARM의 'SC100'은 CPU에 고속 암호화 알고리즘과 자바 기능을 지원하는 보안 전용 프로세서로 스마트카드칩을 제조하는 삼성전자·아트멜·상하이화홍(SHHIC) 등이 라이선



스해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이를 바탕으로 우선 휴대폰 가입자인증모듈(USIM)용 스마트카드칩을 연말에 내놓아 GSM/GPRS 및 cdma 2000 1x EVDO 단말기를 생산중인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중국 차이나모바일에 16kb급 로엔드 SIM용 스마트카드칩을 공급중인 하이닉스는 이번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하이엔드 제품까지 갖춰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모바일 커머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시장공략을 위해 금융 보안규격인 EMV, EAL4+ 인증획득 작업을 추진중이며 RF솔루션업체와 협력해 교통카드 시장에도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하이닉스의 채재호 MCU사업 담당 상무는 “이동통신·뱅킹·교통·ID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카드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책 USIM 개발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스마트카드칩 국산화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양정보처리학원에 메인프레임 전문교육센터 설립

#### 한국IBM

한국IBM(대표 신재철)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학원인 중양정보처리학원(대표 정상은)과 'IBM z시리즈 전문 교육센터' 설립에 합의하고, z시리즈 서버 전문인력 육성에 나선다.

이번 센터는 메인프레임 기반 시스템 프로그래머 교육 활성화 및 병렬 시스플렉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IBM은 중앙정보처리학원내에 IBM S/390 G6 및 주변기기, 운용체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교육실습을 지원한다. 한국IBM은 이 교육센터를 활용해 메인프레임 사용자의 저변 확대 및 IBM z시리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IP기반 셋톱 시장 공략 강화

#### 셋톱박스업체

휴맥스, 한단정보통신, 기룡전자, 인포이큐 등 셋톱박스 업체들이 사이버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IP기반 셋톱박스를 개발,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휴맥스(대표 변대규 <http://www.humaxdigital.co.kr>)는 지난해 12월 SK 최태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디지털TV 솔루션 전문업체 '더콘텐츠컴퍼니(TCC)'에 400대의 IP셋톱박스를 납품하면서 SK건설과 협력강화를 구축해 놓고 있다. 또한 현재 판매중인 리눅스기반 셋톱박스에 이어 'WinCE' 기반의 제품개발을 통해 IP기반 셋톱박스의 비중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기룡전자(대표 권혁준 <http://www.kiryung.co.kr>)는 현대건설의 보정리 사이버아파트에 DVD플레이어를 장착한 주문형 비디오(VOD) 셋톱박스를 공급한 데 이어 미국의 VOD서버



업체인 시체인지와 공동으로 인터넷, e메일, e 커머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IP셋톱박스를 개발, 일본과 홍콩시장 진출을 위해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륭전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아파트, 콘도, 호텔체인점을 중심으로 IP 셋톱박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신규사업에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올해를 흑자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단정보통신(대표 백운돈 <http://www.handan.co.kr>)도 최근 중국시장을 겨냥한 IP셋톱박스 개발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단은 중국시장의 성공여부를 토대로 국내 건설사 등 홈네트워킹 관련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15곳의 삼성물산 사이버 아파트를 유지·관리하는 씨브이넷에 홈매니저먼트시스템 880대를 납품한 인포이큐(대표 오명환 <http://www.infoeq.co.kr>)의 경우 삼성광주공장과 공동으로 IP셋톱박스 칩을 내장한 자판기를 한국식품자판기중앙회에 700대 공급한 데 이어 1000대의 추가물량 발주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명환 인포이큐 사장은 “KT의 시장참여로 인해 내년에는 IP셋톱박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VOD솔루션과 네트워크영상 전송시스템을 접목한 컨버전스형 제품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vc.co.kr)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HD급 가정용 캠코더 및 디지털VHS를 내놓고 고급 영상대전 시장 공략에 나섰다.

JVC코리아는 조선히otel에서 ‘JVC HD World’ 행사를 갖고 HD급 가정용 디지털 캠코더·D-VHS·디지털 HDTV 등 HD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HD급 가정용 디지털 캠코더(모델명 GR-HD1KR)와 D-VHS는 그동안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던 고화질 HD급 영상을 ‘보고(View)’ ‘촬영하고(Create)’ ‘녹화(Record)’ 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HD캠코더는 별도의 테이프 없이도 기존의 미니 DV 카세트테이프(6mm)를 사용해 16대9화면으로 고화질의 HD급 영상을 촬영, 재생할 수 있다.

D-VHS(모델명 HM-DH4000K)의 경우 기존의 비디오테이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HDTV 방송영상을 그대로 녹화, 재생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밖에 JVC코리아는 지상파 방송보다 6배 이상의 고화질을 구현하는 HD급 디지털TV 3개 모델(‘PD-42DX’ ‘AV-36X1500’ ‘AV-32X1500’)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방한한 JVC 츠치야 에이이치 사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정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JVC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최첨단 디지털 신제품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 최초 가정용 HD캠코더 출시**  
**JVC코리아**

JVC코리아(대표 이태구치 요시오 <http://www.jvc.co.kr>)





## 수출형 PLC 개발

LG산전

LG산전은 수출전략형의 초소형 논리연산제어장치(PLC) 신제품 13종(모델명 ASTER-K120S 시리즈)을 개발 완료, 내달부터 국내외 시장에 시판한다.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란 입력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설비 및 가공·조립라인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공장자동화의 핵심기기로 특히 이번 신제품은 개발 초기에 국내외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 반영시켰고 개발 완료 단계에서는 고객들의 평가를 받는 등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했다.

또 명령어 처리속도가 0.1 $\mu$ s(마이크로세크)로 기존 제품보다 4배 가량 향상됐으며 위치제어 기능도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LG산전 관계자는 “고객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중국지역 고객들로부터 100만달러 상당의 제품수주 예약이 들어오는 등 초반부터 호응이 좋다”며 “이 신제품 시리즈로 올해 약 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계최초 슈퍼멀티DVD라이터 출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 <http://www.lge.com>)는 세계 최초로 DVD-RAM·-RW·+RW 세 가지 DVD 포맷을 전부 지원하는 슈퍼멀

티DVD 라이터(모델명 GSA-4040B)를 출시한다.

슈퍼멀티DVD 라이터는 CD 7장 분량인 4.7Gb의 대용량 데이터를 DVD 미디어 단 장에 기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DVD라이터는 기록방식에 따라 DVD-RAM과 DVD-RW·DVD+RW 등 세 가지 규격이 혼재돼 있고 상호호환이 불가능해 시장 확산의 걸림돌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LG전자가 내놓은 슈퍼멀티DVD 라이터는 모든 DVD 규격에 호환된다. 동영상과 음악 등의 미디어 기록에 적합한 DVD플러스(+R/RW와 AV기기와 호환성이 좋은 DVD마이너스(-R/RW는 물론 대용량 데이터의 기록 및 편집에 탁월한 DVD-RAM 규격을 모두 수용해 PC의 멀티미디어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LG전자는 슈퍼멀티DVD 라이터의 안정적인 기록을 위해 버퍼언더런 방지기술을 적용했으며, 전면부 디자인을 새롭게 해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두었다.

LG전자 디지털스토리지(DS)사업부 박경수 부사장은 “LG전자는 일본 업체가 석권하고 있던 광스토리지사업에 뛰어들어 초스피드라할 정도의 선출시 정책과 제품기술력을 바탕으로 98년 이래 6년째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생산혁신으로 세계 1등 사업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16%의 점유율을 기록한 라이트온을 여유있게 제치고 세계 광스토리지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